

작은 것으로 기꺼워 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소설가 문순태 선생

소설가 문순태 선생(72)이 사는 마을 이름이 '생 오지(生奧地)'이다. 생오지란 두메 가운데에서도 아주 깊은 두메산골을 가리킨다. 선생은 대학교수 정년을 맞아 연구실에 그득했던 책을 어찌야 할 지 고민하다가 고향 나들이 길에 만난 빈 카페를 샀다. "여기다 책을 두면 되겠다. 싫어서 샀는데 며칠 와서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엔 집사람은 오지 않으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침마다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아침을 먹으면 밥맛도 좋고 닭을 키워서 달걀을 먹고 채소도 심어서 먹으니까 돈 들 일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좋아요. 이전 집사람은 아예 광주를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집필실에 들어서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두툼한 우리말 사전이었다. 뭘 모르는 나그네가 소설가도 사전을 보느냐고 물었더니, 선생은 사전이 없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고 했다. 늘 사전을 펴어서 보는데 요즘엔 쓰지 않는 친근하고 살가운 토박이말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고 아깝단다. "한때 가장 부러운 이가

**"컬러텔레비전과 냉장고,
둘 다 사지 말고 하나는 남겨두라"**
신혼부부에 '주례사' 하던 스님

우리 풀이름, 꽃이름, 나무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땀을 흘려 발로 뛰어 찾은 자료만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선생은 사람들이 흔히 형용사나 부사에만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도타운 토박이말 가운데는 명사도 아주 많다고 한다. 잘 쓰지 않는 토박이말을 작가들이 많이 쓰면 쓰임새가 높아져서 언젠가는 표준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문순태 선생. "제가 쓴 장편소설 (타오르는 강)이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책이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아 걱정을 했더니 황석영이가 '형, 표준말로 다 바꿔버려, 그러면 많이 팔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어요. 법정 스님이 (타오르는 강)을 다 읽으셨다가에 스님! 석영이가 여기 나오는 토박이말을 다 표준말로 바꾸라는데요. 그랬더니 토박이말은 그 고장 사람들 낫인데 더 살려 써야지 무슨 소리냐고 펄쩍펄쳤어요."

선생은 생오지로 옮겨온 뒤 창작집 (생오지 뜰부기)를 내고, 사진과 어우러지는 전장체험기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을 그린 소설 (알 수 없는 내일), 예세이집 (생오지 가는 길)과 (그리움은 뒤에서 온다)를 내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산 한 바퀴 돌고 와서 개와 닭 모이를 주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글을 써요. 요즘은 소쇄원瀟灑園을 소재로 장



소설가 문순태 선생은 우리가 쓰지 않는 도타운 토박이말로 작품을 쓰기로 유명하다. 잘 쓰지 않는 토박이 말을 작가가 많이 쓰면 쓰임새가 높아져 언젠가는 표준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편 하나 쓰고 있는데, 초고를 600매 줬습니다. 소쇄원을 조성한 양산보梁山甫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15살 때 서울로 가서 조광조 선생 제자가 된 양산보는 인생 좌표인 스승이 능주로 유배 와서 사약을 받아, 시신을 수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면서 소쇄원을 만든다. 소쇄원은 송순 김인후 유희준 기대승 김성원 백광훈 고경명 임억령 정철 같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시를 쓰고 답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막상 소쇄원 주인 양산보는 붓을 쥐었다. 양산보는 소쇄원 안에 봉황이 날아들기를 기다리는 대봉대待鳳臺란 조정草亭을 짓고 벽오동을 심었다. "옛 선비들은 나무 하나를 심는데도 뜻을 부여했어요. 형제가 우에 있기를 바랄 때는 영두나무, 큰 학자가 나오기를 바랄 때는 회화나무를 심고, 은행나무 한 그루, 오동나무 한 그루, 매화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저마다 다른 뜻을 기렸어요." 양산보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봉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스스로를 비우고 시 한 편 쓰지 않고 봉황을 품을 동지만 진실하게 가꾸었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오동나무 가지에만 앉는다는 봉황은 본디 봉황이었다. 그런데 뒤에 수컷(鳳)과 암컷(凰)으로 나뉘었다. 예서 가리키는 봉황은 암수 한 몸이었던 봉황새였을 게다. 나와

**작은꽃이 품은 우주 보려면 낮아져야
"토박이 말 그 고장 사람들 낫이니
더 살려 쓰라고 스님께서 당부"**

내가 갈등 없이 한 몸(鳳)이 되어 힘껏 날아오르는 후 천개벽을 꿈꾸었을 양산보 생각에 잠시 넋 놓고 앉았다가, 법정 스님과 인연을 물었다.

"제가 전남매일신문사라고 야당성향을 띤 신문사였는데요. 그때는 기자들이 신문 행간에 의미를 담아내려고 애를 쓸 때가 아닙니까. 유신시대, 단한 사회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써봤자 제대로 된 글도 쓸 수 없어서 법정 스님한테 자주 놀러갔어요. 스님이 불일암에 계신지는 송광사 아래 광천지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봐요. 그때는 스님 움직임 하나하나 날 날이 독재정권 족수가 훑고 있을 때니까. 80년도 봄에 '봄이 오네'라는 시리즈를 했어요. '봄'이 상징하는 뜻을 담아. 맨 먼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법정 스님을 모셨지요."

그 뒤 선생은 80년 8월,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직시킬 때 가장 먼저 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향신문사에서 나오는 월간지에서 법정 스님 인터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직장을 잃어 한 톨이 아쉬웠던 선생은 스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부탁했다. 스님은 무슨 인터뷰냐고 그냥 놀다가 가라고 했지만, 그다지 거슬러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조금 있으니까 법정 스님 글을 너무 좋아해서 별교에서 신혼여행을 송광사로 왔다는 신혼부부가 올라왔다. 법정 스님은

"그러면 내가 주례사 한 마디 하지"하면서 새색시한테 "컬러텔레비전은 샀소?" 운을 똥다. 그때는 컬러 텔레비전이 막 나올 때여서 웬만한 집에서는 염두를 내지 못할 때였다.

"신랑이 '아뇨. 아직 못 샀는데요.' 그러니까 '살 거지요?' 하고 물으세요. 신랑이 '사주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샀소?' 또 이렇게 물어요. '냉장고도 사야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면 둘 다 사지 말고 하나는 남겨두라'면서 '컬러텔레비전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나면 다음에는 또 뭘 사고 싶겠소?' 계속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서 '둘이 갖고 싶을 때 하나는 늘 남겨두라'고 그러셨어요. 참 뜻 깊은 말씀이었어요."

그 밖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슬기 몇 가지를 짚어 주신 스님은 내려가는 신혼부부 등에 다 대고, 송광사 입구 초가집에 사는 노부부한테 꼭 들려서 몇 말씀 듣고 가라고 일렀다. "거긴 왜 들르라고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가난한 노부부가 가진 것은 없지만 도타운 정을 나누며 오순도순 산다는 거예요. 당신 천 마디 말씀보다 거기서 한 시간 머물러 가야 좋을 듯 해서 그랬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화두처럼 던지는 이런저런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내려오는데 뛰어내려오면 말씀이 다 흐트러질까봐 조심조심 내려와서 기억이 사라질까봐 송광사 아래 초가집에 앉아서 하나하나 떠올리며 꼼꼼히 적었어요."

말씀 끝에 법정 스님이 외환위기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저녁마다 향을 사르고 천지신명에게 열심히 기도를 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그러기를 여러 달.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옥황상제께서 그대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게 그대 소원을 들어오라 하셨으니 소원을 일러보라!" 느닷 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해 하던 선비는 "소원이랄 것도 없고, 그저 몸이나 가리고 제때 밥걱정 하지 않고 한가롭게 산전을 누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옥황상제 사신은 "아니, 그것은 하늘나라 신선이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데 어찌 그대가 누리기를 바라는가. 부자가 되거나 귀해지기를 바라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소원일세"라고 했다는데. 작은 것으로 기꺼워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다.

"스님은 장애 가는 길 좋아하세요. '장애 가서 시골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겐 충전이야' 그러세요. 같이 가보면 뭘 사지는 않고, 늘 어떻게 사느냐, 벌이는 얼마나 되느냐? 물어요. 장바닥에서 나물 같은 걸 뜯어다 파는 분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빈 마음을 지닌 가난한 이들 말간 모습을 좋아하고 아주 부러워했어요. 스님은 그 둘레 오일장을 다 꿰고 계셨어요. 순천, 승주, 주암..."

그 무렵 불일암은 달맞이꽃이 한창이고 대낮에도

빙의 (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귀축도가 서럽게 울었다. “스님, 저는 귀축도가 밤에만 우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는 낮에도 우네요. 하고 말씀을 건넸더니 스님이 ‘어젯밤에 귀축도가 어찌나 서럽게 울어 뺏던지 잠을 통 못 잤어.’ 그러세요. ‘귀축도가 왜 스님을 잠 못 들게 했을까요?’ 어쨌든 당신이 전생에 누군가를 잡들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전생에 무엇이었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전생에도 종이였을 것 같아. 어렸을 적에 스님이 탁발을 하러 오면 반가워서 졸래졸래 따라다니다가, 마을을 떠날 때는 동구 밖까지 따라가서 스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낮 놓고 바라보았단다.’ 그러셨어요. 전생에 스님이었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시더군요.”

“큰 절까지 내려가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상추쌈으로 요기를 때우더라고” 하면서 스님이 차려주는 공양을 받기도 했다. 반찬이라고 해봐도 상추와 생된장에 생오이 몇 조각과 된장에 버무린 취나물뿐. 간단한 ‘무소유’ 밥상이었다. “그런데 스님, 불일암에는 왜 상좌가 없습니까. 허드렛일은 상좌스님한테 시켜야지요.” 선생은 스님이 손수 차려 주는 밥상 앞에서 민망해 아쩔쩔 할라 하며 물었다. “상좌, 필요 없어. 아랫사람 하나 거두는 게 지옥 한 칸 끼고 사는 일이나 다름없거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한사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면 충분히 한 기 때울 수가 있잖아? 돼지는 입이 맨 앞에 있지만 사람 입은 얼굴 맨 아래에 있거든.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그다음에 먹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듯이 먹는 것을 너무 앞세워.”

법정 스님은 문순태 선생에게 시사時事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런데 빠지지 말고 자연에 관심을 가지라 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뒤에 신문사 그만두고 예세이점을 뉘 때 신문에

“아랫사람 하나 거두는 게 지옥 한 칸 끼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사時事는 의미가 없으니 자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

썼던 칼럼들을 모아서 책을 내려고 했어요. ‘이거 쓰다가 잡혀가면 어쩌지?’ 하면서 가슴조이며 썼던 칼럼들인데, 뒤에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제야 ‘아!’ 알아들었어요. 생선은 찌기 쉽고 썩은 생선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밀려들더군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나무나 풀, 새들이 이야기가 생명력이 있어요.” 작은 꽃이나 풀잎 하나도 결코 하찮지 않다. 스님은 사람들이 본디 마음자리를 찾아 세상·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꽃 하나에 정성을 쏟게 했다. 맑고 향기롭게 ‘살림’.

“이런 시골에 있으면 자연스레 낮아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추나 채소를 심을 때 여기 분들이 제게 유치원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번번이 실패를 하거든요. 제가 한없이 낮아짐을 느껴요. 자연 속에서 낮아지고 사람들 속에서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질 수 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너무 행복해요.” 이 때 선생 예세이 <그리움은 뒤에서 온다>를 읽었을 때 느꼈던 감동이 되살아난다. 기쁨기가 다 빠져서 순수하고 질박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담백한.

“글에서 사치를 부리고 깨달음을 드러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소설에는 지식인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지식인 눈은 굴절되어서 순수하지 못하죠. 외려 세상이 무지렁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훨씬 순수해요. 보면 본 대로, 느끼면 느낀 대로, 얼마나 깨끗해요. 있는 그대로 모습,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법정 스님이 시장에 가서

서 순수한 그 사람들 이야기와 생각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느낄 뿐이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잖아요. 낮아지면 세상이 더 잘 보여요.” 말간 순수 앞에서 낮아짐이 깨달음이고 즐거운 도도다.

“제가 광주 살 때는 세상을 다 끌어안을 것 같은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로 내려와 보니 관대수염나물이라고도 하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작은 보랏빛 꽃이 있어요. 코딱지만큼 작다고 해서 코딱지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군락을 이루고 피는 모습이 점점게 다가오더군요. 우주에서 내려다보기보다 그 작은 꽃이 품은 우주를 봐야 하거든요. 낮아져야 나를 낮춰야 보여요.” 티끌 속 우주다.

“<생오이 뜬부기>라는 중편 소설도 ‘사운드스케이프 Soundscape 세상’ 이야기에요. 지식인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다가 퇴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미 사라져 버린 뜬부기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지요. 뜬부기는 70년대에 다 사라졌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뜬부기는 거의 쇠붙이예요. 뜬부기가 없어 버린 작지만 소중한 것을 상징이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참새도 줄어든고, 아지랑이도 없고. 연자방아, 물레방아 따위는 말할 것도 없이 제비를 닮은 명매기(귀제비)는 있는데 제비는 없더라고요. 제비집이 아예 없어요. 소리 풍경 세상을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자연이 지닌 원음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1월 9일자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홍성리 선생 편 ‘말암에 대학생이’는 ‘마을에 대학생이’로 바로 잡습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인생은 발견이다

삭풍(朔風)이 발가벗고 있는 나무를 흔들고 간다. 그래도 매화가지에는 꽃망울이 빼주룩 빼주룩 내밀고 있는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계절의 순환을 느끼게 된다. 침엽수들도 생기를 잃고 가지가 나부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봄이 신속하게 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한 일이다. 저 나무들은 웃을 흠뻑 벗어 버리고도 동(東)장군과 어찌 맞설 수 있단 말인가. 그 원리는 간단하다.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시키지 않고 내면에 축적시켰다는데 있다. 만약 그 에너지를 발산시켜 모두 소진되었다면 존재의 의미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에너지는 아무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쓰는 용도와 시기가 있다. 용도와 시기를 아랑곳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쓰다 보면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를 살피고 성숙시켰다. 석존이 6년 동안이나 깊은 명상에 들었던 것도 내면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진이었다. 보리달마가 9년이나 면벽하고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이다. 역대 조사들의 면면을 보아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일상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확장해 가다 보면 일상에서 소홀히 여기고 지나쳤던 일들이 꽃잎에 맺힌 영롱한 물방울 마냥 투명하게 정신세계에 자리 잡게 된다. 그 영롱함은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씩 걸음을 내딛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정과 친숙, 화해와 자비의 출렁이기를 놓기도 한다. 우리의 에너지는 연소되어 흩어지는 굴뚝의 연기처럼 하찮은 것이 아니다.

눈이 시릴 만큼 명백한 사실도 부정한다. 자기 눈으로 관찰한 것들 까지도 부정하는 세상이다. 무엇 때문일까.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고

발가벗은 나무 삭풍에 견뎌낸 에너지 밖으로 발산않고 수렴한 까닭 욕망 발동하면 내면 부실은 자명 성취보다 발견에 집중해야 행복

하기 때문이다. 화학약품이 든 사료를 먹고 자란 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자신이 보는 것을 부정하기 일 수다. 이러한 행위는 전적으로 이윤 동기에 있다.

티베트 경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행운의 신은 수 없이 당신을 찾아오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없다.”

신은 당신의 문을 수 없이 두드리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 없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방랑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 놓고 밖으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몸을 떠나 다른 곳을 떠도는 나그네를 찾을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내집에 든 신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대책 없이 떠도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길은 발견 또 발견이다. 발견은 평소 그냥 스쳐버린 것들을 쟁기는 것이다. 발견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묘약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긴요한 처방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새순이 돋는 나뭇가지에만 눈길을 가는 것일까. 어떤 타성에 젖어서 일 것이다. 나뭇가지에도 눈길을 주자. 그 가지에는 뿌리까지 내려가는 수액의 통로가 있다. 그 통로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는 한 동맥경화가 없다.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 내지: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지: 레저크지 음셋 4"	· 표지: 레저크지 음셋 4"	· 표지: 레저크지 음셋 4"
· 제본: 한장본 실체본	· 크기: 220mm×310mm	· 크기: 220mm×310mm	· 크기: 220mm×310mm

11호~17호 법화경(한문) 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 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춤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성: 한지날장
· 크기: 636mm×313mm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저크지 음셋 4"
· 제본: 한장본 실체본	· 크기: 435mm×300mm

※사경지※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성: 한지날장
- 크기: 636mm×313mm
- 종류: 한문,한글

쿠라다케 붓펜
입하

민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cm) @2,5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Box)
· 공단등(8cm) @3,0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국산) 180,000원(1Box)
· 공단등(10.5cm) @5,000원 (24개이상)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1Box)
· 공단등(13cm) @10,000원(12개이상)	· 전룡 등등 (50개) 170,000원(1Box)
· 공단등(20cm) @35,000원(4개이상)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 바림등(6cm) @2,500원 (50개이상)	· 장만월등(100개) 200,000원(1Box)
· 바림등(8cm) @3,000원 (50개이상)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1Box)
· 바림등(10.5cm) @5,000원 (24개이상)	· 비단접등(10.5cm, 12cm) 350,000원(100개)
· 바림등(13cm) @10,000원(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cm) @80,000원	

방수전선간격(50구)
23cm / 25cm / 30cm / 50cm
1m / 2m ※기타주문생산

연일(일반)/바림/신칼라(천) 6,000원 / 7,000원 / 25,000원
전구(5W/8W) 450원 [국산]
180K 100개 세트용 동진전구

봉축카드[21종] @300원 (1,000장 이상)
구성: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18.5×25.6cm
봉투: 19×13cm

집계부착PVC동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 (051) 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